가톨릭마산

제2286호 2017.12.31.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교구장 사목표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전화 055)249-7072~4 팩스 055)249-7117
홈페이지 http://cathms.kr 메일 media@cathms.or.kr
주소 (51727)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강론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시메온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 아들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루카 2,35)만한 큰 고통에 대해 예언합니다. 과연 시메온의 예언은 곧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분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처의 두 살 이하 어린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려는 헤로데의 위협 때문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마태 2,13) 이집트로의 피신은 험한 시골길을 15일 동안이나 가야 하는 힘든 여정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낯선 땅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알지도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몇 해가 지나고 천사가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마태 2,20) 하고 말합니다. 또다시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유다 땅에 정착하려 하였으나, 자신들의 계획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시자 적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마리아는 가슴 졸이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곁에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칼에 찔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언제나 하느님의 뜻 그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가정이 나자렛 성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자신과 가정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곽준석 요셉 **신부** | 신안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3면 2018 사제 서품식 안내
6면 사제의 한마디

제1독서	집회 3,2-6.12-14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루카 2,22-40 또는 2,22.39-40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성탄. 나를 통해 오시는 하느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 하늘 아기 곁에서는 그대 안의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얻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대 생긴 모습 그대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그대와 세상을 위해 태어나실 마구간임을 믿으십시오.

– 안셀름 그린 –

내가 잘나서 내 안에 하느님이 오시는 것도, 네가 못나서 네 안에 하느님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루카 1,28.37.38 –

얼마나 잘나고 못났는지의 정도.가 아닌, 하느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났으나 삐뚤어진 바리사이보다, 못났으나 올곧은 세리의 마음에 하느님은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는 하느님뜻.과, 작지만 주님을 향하는 내뜻.이 일치를 이룰 때, 하느님은 나에게 오시고, 나를 통해 세상에 오십니다.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 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께서 행복을 내려 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 주리라.

– 시편 84,11–13, 최민순 역 –

● 게이트키퍼(자살예방활동가) 양성 교육

교육이 가정사목국 담당 직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게이트키퍼(자살예방활동가) 양성 교육이 12월 17일 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은 자살위기자의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발견하여 전문가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더불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역할을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소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좋은 교육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였다.

● 교구 푸른군대 봉사자 피정

피정에 함께한 푸른군대 봉사자들

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군대'(담당 : 박호철 요한 신부, 회장 : 서명숙 마리아)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봉사자 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피정에는 봉사자 22명이 참석하였다. 피정은 이청준 신부(F. 하비에르, 마산가톨릭교육관장)의 지도로 이루어졌으며, 봉사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사랑,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박호철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2018년 파티마 발현 교구 행사'를 위해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봉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2018 교구 사제 서품식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 속에 교구 부제 3명이 사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 일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사제품 대상자

허기원 마르첼리노
첫미사 하대동성당
2018년 1월 11일(목) 10:30

주경환 십자가의 요한
첫미사 월영성당
2018년 1월 11일(목) 19:30

정재덕 안토니오
첫미사 중앙동성당
2018년 1월 12일(금) 19:30

사제들을 위한 기도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사랑하는 사제들을 굽어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증언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믿음을 따르고 지켜가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봉사를 본받고 실천하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가난을 받아들여 자유롭게 하소서.
사제들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 스스로 낮추게 하소서.
사제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하느님 백성의 길잡이가 되고 일치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사제들이 모범이 되어 성실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 일 시 : 2018년 1월 10일(수) 14:00 | ■ 장 소 : 성지여고 강당 | ■ 주 례 : 교구장 배기현 주교

CBCK 2017년 가정 성화 주간(12. 31.~2018. 1. 6.) 담화문(요약)

가정, 사랑의 기쁨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부부의 참된 사랑'이 자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야 할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 위기에 빠진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혼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입시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너그럽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실하게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특히 혼인 전에 자녀를 둔 미혼모들에게 더욱 큰 사랑과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는 법률적 잣대로만 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이 알려 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의 아픔과 함께하며 이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시다. 장애아라는 어려운 시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생명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인 고귀한 모습을 교회와 사회에 보여 줍니다. 가정이 장애인 가족을 신앙 안에서 따뜻하게 받아들여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가정은 인간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이 사회에 알리는 복음 선포의 공동체가 됩니다.

극심한 빈곤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삶의 한계 상황을 매우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가정들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가난과 고통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혼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고통과 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엄격한 기준만을 강요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은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해 이 사회의 심장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정 성화 주간을 보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족들이 더욱 친밀해지는 가운데 복음화 사명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2017년 12월 31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2018. 1. 1.) 담화문(요약)

이민과 난민 : 평화를 찾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전 세계 이주민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으려고 그들은 역경과 고난을 견뎌야 하며 울타리와 장벽에 직면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자비심으로 끌어안읍시다. 올바로 이해된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적 통로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방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많은 목적지 국가에서는 인간 품위를 깎아내리는 과장된 외침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관상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용기와 재능과 에너지와 열망, 그리고 고유문화라는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여 준 나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이 관상하는 시선이 공공의 선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식별을 이끌고, 환대의 정책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평화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려면 네 가지 행동,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그리고 통합하기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대하기"는 국가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몰아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하기"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착취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증진하기"는 온전한 인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통합하기"는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회의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여럿이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이민들과 난민들의 공헌을 평가할 줄 안다면 인류는 모든 이의 가정이 되고 이 지구는 참으로 '공동의 집'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성녀를 기억합니다. 이 여성은 이민들을 섬기는 데 생애를 봉헌하였고 그들의 주보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녀의 전구로써 다음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가정 성화 주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에서 참조 바랍니다.

송구영신 피정

몇 해 전부터 연말연시에 특별한 여행이나 모임 등의 이벤트를 만들지 않고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송구영신 피정에 참여해오고 있다. 교통체증과 인파로 짜증나고 피곤한 여행과 술과 음식에 몸과 마음이 지치는 떠들썩한 모임들이 주는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고심 끝에 찾아낸 가장 이상적인 방법. 송구영신送舊迎新,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 일. 송년감사미사로 지난해를 보내고 1월 1일 평화의 날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를 봉헌하면서 새해를 맞는 일. 이보다 더 좋은 송구영신이 어디 있을 것인가.

교육관이 위치한 봉화산은 본래 일출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 잔잔한 바다와 올망졸망한 섬들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성모 동굴 쪽에서는 일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편 생각해보면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라고 뭐 별다를 것인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시간 단위는 영겁의 시간을 우리 인간이 그저 편의에 의해 구분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리라. 어쨌든, 갈매기 나르는 창연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만물을 지어내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찬미할 수 있다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의 시간 속으로 잠시나마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일상의 번거로움을 피해 침묵과 기도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영혼을 정화하는 '피세정령避世靜靈', 즉 피정은 우리가 하느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일 년에 몇 차례씩은 고향을 찾는다.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그토록 힘든 '귀성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줄지어 고향을 찾아간다. 귀성歸省. 늙으신 부모님과 가까운 어르신들, 조상님들의 묘,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산천, 즉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근원을 찾아가 근황이 어떤지 살피고 돌보며, 아울러 그 안에서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과 본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고 힘과 용기를 얻어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성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의 귀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결국은 가야 할 진정한 본향本鄕,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피정을 우리의 '영적 귀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일 년에 두 번 이상 이 '영적 귀성'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일 년에 한두 번씩 '세속 귀성'을 하듯.

"삶의 향기"

신비한 꿈

이재연 루치아 · 반송본당

나는 바오로와 함께
빛나는 깜장 모래 둔덕을 펀펀하게 하고 집을 짓고
바오로는 연못에 팔뚝만 한 물고기를 몇 마리 집어넣었다.

물 위에 있는
뗏목 같은 나무배 위에서
바오로와 나는
장삼 같은 하얀 겉옷을 펄럭이며
학처럼 너울너울
서로 어울리며 춤을 추다가

아름답게 꾸며진 새하얗고 널따란 시트 위로 떨어지듯 사뿐히 함께 벌렁 누웠다.

머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눈이 번쩍 떠져서 보니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물 위에 있나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병실 바닥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다 문득 깨우쳤다.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 쉬게 한
그곳은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이었다 걸.

한동안 빛나는 까만 모래가 궁금했었는데 불현듯
내가 새벽에 일어나 매일 바치는 9일 기도
묵주가 생광석 까만 묵주……!

보내실 주소(미디어국) : 1면 참조, media@cathms.or.kr/ A4, 10P, 17줄 내외, 원고지 4장 이내 분량(※ 주의사항 : 분량 초과 시 게재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기도문 액자와 천연비누를 보내드립니다.

“시간의 끝에서 나를 보며…”

“자화상”

아침에 옷을 입으면 가벼운데
길에서 떠돌다 돌아온 밤
옷을 벗으면 무겁다.
아마, 삶의 무게가 하루만치 더해졌기 때문이리라.

하루, 한 해의 시간은
삶을 깎아 먹고 만들어진다.

나이 들어감이
거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깎아 먹을 은총이 없어질 때까지
버텨서 얻어지는 것이리라.
삶이 거덜 난 것은 사랑이 끝나고서야 알게 된다.
– 겨울바다(南海) –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나이 쉰이 넘어도 엎어져 무릎이 깨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두려움인가!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교구청 발령입니다. 본당이나 사회복지 일선에서 주교님을 바라보았을 땐, 크고 인자하신 반면 인사권을 행사하시고, 교구 재산을 주무르고, 어디 가든 대접받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 하시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자니 안쓰러워졌습니다. 하루의 무게만큼, 한 달, 일 년의 당신 무게 만큼에다가 교구 전체 본당과 수많은 사회복지시설, 신심 깊은 교구민들의 바람과 소망까지 얹어서 살아가셔야 하니… 얼마나 더 많은 주님 은총과 신자들의 기도를 깎아 먹어야 할까요?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특별히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함치고, 눈을 부라리고, 욕설을 해대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고함치고, 눈을 흘기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화해하는 날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고, 꼴 보기가 싫어서 얼굴을 돌리고 어디 가서든 그 사람만 보이면 보기 싫어 달아났지만, 오늘만은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못할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어머니와 아들딸 사이에 화해를, 아버지와 딸 아들 사이에 화해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화해를,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해를, 형제와 자매와 남매와 가족 간에 화해를, 마음 상해 떠나버린 친구와 친구 사이에 화해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 연인 사이에 화해를, 내 이웃집 담을 넘어서 화해를, 본당의 우리 신자와 신자 사이에 화해를, 남과 북의 형제자매들 사이에 화해를,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밤만이라도, 아니 오늘 밤 이후에는 싸우고 삐치더라도 금방 화해하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밤이니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은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릴 헌신성을 지닌 성인成人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꼭 필요한 애정을 다른 데서 구걸하지 않을 만큼은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선善은 그들 자신이 선택할 몫입니다.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욕망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들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경계할 줄 알면 충분하고, 거짓말을 혐오하는 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일을 향해 돌진하면서 여러분을 잊은 듯이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위대함에 대한 어리석은 환상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름답고 위대한 그 무엇을 향해 그들을 부르시거든,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나 되지 마십시오. 그들 대신 결정할 권한을 지녔노라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결정해야 할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때로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가치 없이 사는 인생보다는 이런 삶이 훨씬 더 견딜 만합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충고보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존경심과 여러분이 자녀에게 지니고 있는 존중심이 그들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숨 막히게 만드는 수천 마디의 훈계보다는 자녀들이 집에서 본 여러분의 행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분명하며 순수하게 표현하는 애정, 상호존중, 절제된 감성, 균형 잡힌 열정, 아름다운 것과 예술에 대한 감수성, 미소 짓는 능력이 그런 행동입니다. 사랑에 관한 온갖 좋은 말들이 굶주린 떠돌이를 위한 자리 하나를 집 안에 마련하는 내 어머니의 행동보다 나를 더 잘 가르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의하게 비난받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아버지가 앞장섰을 때보다 인간다운 용기를 더 잘 들려줄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실천하고 집 밖으로 나갈 용기를 지닌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집에서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에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잘 살아가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 마르티니 추기경이 엮은 성 암브로시우스의 말씀

C.M. Martini, Sette dialoghi con Ambrogio, Vescovo di Milano, Milano 1996, 6–8. –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 교부(340~397)가 자녀 교육에 관해 남긴 가르침을 밀라노 전 교구장이었던 마르티니 추기경(1927~2012)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엮어 놓은 글이다. 달리 해설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아름다운 말씀이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탁월한 덕행으로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아드님의 뜻을 좇아 심장이 꿰찔리는 고통을 묵묵히 견디신 어머니, 아드님의 십자가 길마저 가로막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뒤따르신 어머니, 아드님을 앞세우는 참척慘慽의 고통에도 꺾이지 않으신 어머니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요셉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저희에게 주소서.

※ 한 해 동안 교부들의 말씀에 기댄 보잘것없는 글을 실어주시고 읽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가정(Gutierrez)

'최원오 교수님'의 글은 이번 호로 마칩니다.

어머니를 닮은 나 자신이 싫습니다

7살, 5살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결혼하면 아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는 저를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외동딸인 저와 어머니 단둘만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잠깐 양아버지와 같이 산적도 있지만 아마 저를 잘 지키기 위해서 헤어지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억척같이 일을 하여 저를 대학까지 마치게 했으며 남에게 기죽지 않게 책과 옷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어머니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마음의 빚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친구이자 위로자가 되어 하소연을 잘 들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었던 어머니의 잔소리에 그만 질려버렸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 두 시간도 세 시간도 계속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엉키면 집에 와서 울며불며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바깥에서 친구랑 함께 있다가도 어머니가 부르면 당장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저의 일과 공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철든 후 결혼 전까지 어머니와 한 공간에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숨이 막힐 것 같았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자상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두 딸과 남편에게 엄마 판박이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집에서 뒹굴뒹굴 깔깔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 집이 어질러지고 싱크대에 설거지 감이 쌓인 것이 눈에 들어오면, 꼭 제가 들어왔던 예전의 엄마의 목소리 톤과 말투로 가족들에게 똑같이 퍼붓습니다. 제 분이 풀릴 때까지. 남편이 저보고 장모님과 꼭 같다고 합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우리 두 딸과 남편도 언젠가 저를 미워하며 떠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

남편으로부터 장모님 닮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하셨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싫었던 엄마의 판박이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얼마나 놀라셨어요? 엄마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기분을 맞춰주며 하소연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살아오셨군요. 어머니는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고달픈 것을 딸과 나누며 해결해 오신 것 같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반발도 하고 무척 싫어하면서도 꾹꾹 참고 견디었고요. 그런데 지금 엄마처럼 하고 계시는군요.

어머니의 행동이 딸에게 고스란히 내면화된 것 같습니다. '미워하며 배운다.' '싫어하며 따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충성심'에는 분노 표현방식, 무시하는 행동, 폭력적인 행동, 외도, 알코올중독 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미워했던 부모에 대해서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역기능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대로 지금처럼 분노를 폭발하면 두 딸은 마음으로 엄마를 떠날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에 대물림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 맞지요? 편안함과 즐거움, 웃음과 생동감이 있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 맞지요?

우선 매일 감사하십시오. 적절한 시기에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룬 것, 두 딸과 함께 깔깔깔 웃는 주말 풍경이 있는 현재의 우리 집, 신앙이 있는 것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화내는 것을 멈추고 화가 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세요. 분노조절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성실한 신앙생활과 독서, 운동과 취미생활, 좋아하는 공부와 상담도 권유합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 올리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가정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나잇값

배의순 요한 보스코 • 시인

『계로록戒老錄』을 집필한 일본의 소노 아야코는 40여 년 동안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초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다. 유명 작가이기도 한 그녀는 로마 교황청의 성 십자가 훈장(1979년)을 받았고, 그 외 4건의 수상 경력이 있다. 『계로록』에는 만년晩年의 기본적인 지혜와 덕목을 적고 있다. 이를테면 나이를 먹으면 어떤 일을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적인 언동은 자제해야 한다. 돈을 쓸 때 체면 없이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등, 노년의 슬기로운 삶을 일목요연하게 적고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남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만년으로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근본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

지금은 나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언젠가는 다가올 순간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잇값을 할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누구나 덕망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은 노년의 더할 수 없는 바람이 아닌가. 소노 아야코가 말하는 만년의 명목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여기에 다시 상기想起해 본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삐딱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고쳐야 한다. 한가하게 남의 생활에 참견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몸가짐도 단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녁노을이 해돋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몸이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든다. 그래서 나이 듦은 노화가 아니라 진화라 하던가. 그리하여 인간은 스스로 변화하는 데 삶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는 한 주간 3~4권의 책을 즐겨 읽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역동적인 작업이다. 내 안의 상처와 타인의 상처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독서가 아닌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위하여 내게는 더없이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필자는 오래전에 내자와 함께 천주교한마음운동본부에 장기기증을 등록해 두었다. 신성한 성스러움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천국의 한쪽 구석에라도 들어가기 위해 그것이 사랑을 남기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한동안 '웰빙'이 대세였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이였다면 이제는 '힐링'을 내세우고 있다. 치유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는 뜻이 아닌가.

새해에는 지금의 삶이 더 숭고한 것처럼 오로지 주님께 맡기자. 사려 깊게 나잇값을 하면서 말이다.

제10차 교구 청소년 성령세미나(2박 3일)

일 시 : 2018. 1. 12.(금) 14:00~14.(주일) 16: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예비 고등학생~예비 대학생
참가비 : 9만 원, 경남 506-22-0358489, 박혁호/ 접 수 : 2018. 1. 3.(수)까지 (참가비 입금순 50명)
신 청 : 젊은이성령쇄신봉사회 myhs.or.kr 010-8864-7067, 010-2879-4645
※ 파견미사 초대 2018. 1. 14.(주일) 14:00

2018년 신앙대학 총동문회

일 시 : 2018. 1. 13.(토) 11:00
장 소 : 교구청 2층 회의실
대 상 : 운영위원 및 각 본당 대표
안 건 : 졸업생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건
문 의 : 회장 010-4581-5420

2018년 교구 연령연합회 정기총회 안내

일 시 : 2018. 1. 13.(토) 14:00
장 소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대 상 : 각 본당 연령회장단
신 청 : 2018. 1. 7.(주일)까지 각 지구연합 회장에게 참가인원 통보(각 본당에 발송된 공문 참조)
문 의 : 회장(정 예로니모) 010-6677-6675

가톨릭 여성회관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모집

시 간 : 09:00~13:00(4시간) 월 1회
내 용 : 급식 재료 손질, 조리, 배식, 설거지
혜 택 :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문 의 : 가톨릭 여성회관 한마음의 집 055)299-2471, 010-5529-6728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알립니다!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 후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련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 수품자 피정 ◆

일 시 : 2018. 1. 3.(수)~9.(화) 6박 7일
장 소 : 고성 성심의 집

교 구

■ 청소년 견진성사

일 시 : 2018. 1. 6.(토)~7.(주일)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1~3

■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 명 : 박준석
담당판사 :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 소 : 교구 법원
마 감 : 2018. 1. 15.(월)까지
문 의 : 법원 055)249-7111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수요일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 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본당 사무실 055)298-4657

기관·단체

■ 청년 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우리나라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미사

일 시 : 매주(금) 19:30
장 소 : 교구청 지하 성당
문 의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 농어촌 선교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일 시 : 2018. 1. 3.(수) 10:00
장 소 : 가좌동성당
문 의 : 가톨릭 농민회 055)582-7010~2

■ 레지아 평의회

일 시 : 2018. 1. 7.(주일) 14: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레지아 055)249-7115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 시 : 2018. 1. 7.(주일) 15:00
장 소 : 남성동성당
문 의 : 농아선교회 011-9207-8856

■ 186차 ME 주말 안내 2박 3일

일 시 : 2018. 1. 12.(금) 19:00~14.(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황석규(시몬)·이진경(세라피나) 부부 010-3569-3656
○ 187차 ME 주말 : 2018. 2. 23.(금)~25.(주일)
○ 188차 ME 주말 : 2018. 4. 13.(금)~15.(주일)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모집 안내

일 정 : 2018. 1.~12. 매주 월~금 방과 후 (주말체험 매월 1회, 자기개발 활동 매월 1~2회 진행)
장 소 : 진해청소년수련관
대 상 : 중1~2,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우선 선발기준 있음) 40명
참가비 : 전액 무료(단, 교재비 개인부담)
문 의 : 진해청소년수련관 055)540-0166~8

■ 함안 안나의 집(노인 장기요양시설) 안내

대 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1~4등급자 노인 중 시설급여 대상자(단, 3·4등급

Club Raphael
라파엘여행사
◈ 1/30 이스라엘 9일 (359만원)
◈ 2/9 2/14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99만원)
◈ 3/5 스페인, 포르투칼 10일 (299만원)
◈ 3/5 이태리, 이스라엘 12일 (3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좋은벗 상담교육센터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부모교육/ 심리검사/ 청소년상담/ 학습클리닉/ 상담전문가 양성
소장 김홍숙 세레나
www.joeunbut.net
055)266-7942
가톨릭마산 매월 마지막 주 '가정상담' 연재 중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자는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판정받은 사람)
주 소 :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번지 대산성당 내
문 의 : 055)582-0252, 010-2674-6174

■ **나자렛소규모요양센터(노인 장기요양시설) 안내**
대 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1~4등급자 노인 중 시설 급여 대상자(단, 3~4등급자는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판정받은 사람)
주 소 : 창녕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 의 : 나자렛예수수녀회 055)532-7811 010-8232-7811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 정 : 매월 첫째 주(토)
장 소 : (마산)월영성당 10:00
(창원)사파동성당 10:00
(진해)중앙동성당 10:00
(통영)태평동성당 10:30
(거제)고현성당 10:00
문 의 :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 산 :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 원 :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첫째 주(금) 10:30 대방동성당
진 해 :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 주 : 첫째 주(월) 10:00 하대동
문 의 :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 **교구 내 병원 미사 안내**
마 산 : **삼성병원** 매주(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 원 :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3층 강당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 주 :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지하성당

기 타

■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 2박3일 피정(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
일 시 : 2018. 1. 5.(금)~7.(주일) 2박 3일
2018. 2. 5.(월)~7.(수) 2박 3일
장 소 : 경기도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 내 민족화해센터
문 의 : 전 크리스티나 010-6254-0057

■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일 시 : 2018. 1. 5.(금) 18:00~7.(주일) 15:00
장 소 :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 발 : 마산역 김안과 앞 11:40
문 의 : 043)213-9103, 010-3798-5418

■ **2018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 보건복지교육계열 4년제 대학 ■ 취업 잘 되는 대학 ■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만족도 높은 쾌적한 최신 기숙사
모집인원 : '가'군 간호학과 14명
원서접수 : 2018. 1. 6.(토)~9.(화)
인터넷 원서 접수처 : 유웨이
문 의 : 061)280-5108, 5150

■ **살레시오여름신앙학교(초3~6)**
일 시 : 2018. 7. 20.(토) 시작, 2박 3일 총 7차/ 참가비 : 10만 원
주 관 :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신 청 : 12. 20.(수)~선착순 마감
주 제 : 랄랄라~ 성가정 속으로 yo!
문 의 : 062)373-0942, 010-4141-2271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팬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 의 : 064)758-6476, 010-4566-6476

옥포본당 제18대 사목위원 개편

사목협의회장 : 정병규(바오로)
남성부회장 : 최상호(아스테리오)
여성부회장 : 김미옥(프란치스카)
총 무 : 강병규(요나)
기획재경분과위원장 : 이현석(안드레아)
전례분과위원장 : 박송아(마리아)
복음화분과위원장 : 장수선(M.막달레나)
교육분과위원장 : 양한희(노엘라)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박무용(프란치스코)
구역분과위원장 : 임행선(프란치스카)
청소년분과위원장 : 강병수(즈카르야)
시설분과위원차장 : 신주현(프란치스코)
가정분과위원장 : 김성자(체칠리아)
미디어분과위원장 : 이강현(요한)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2018. 1. 1.(월) 19:00	월남동성당	사랑합시다(요한 13,34)	김현조(스테파노, 서울대교구)	최용진 신부(이냐시오)	010-5247-9900
창원지구	※ 2018. 1. 1.(월) 성령기도회는 연휴 관계로 쉬어갑니다					010-9969-5340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8. 1. 7.(주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korvocation@columban.or.kr

새로운 눈이 열리는
통영예일안과
◆ 백내장 클리닉 ◆ 안질환 클리닉
◆ 안성형 및 사시 클리닉
◆ 녹내장·망막 클리닉
◆ 안구건조증 클리닉
◆ 콘택트렌즈 클리닉
통영시 중앙로 240 통영메디칼 빌딩 2층 외래진료/ 6층 수술센타
원장 : 강태중 프란치스코
055)644-5419, 646-7968

땅과 밥상 · 사람과 세상 · 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우리농 직매장
친환경 농산물 ·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산교구 1호 우리농 직매장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할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용시간 : 월~토 10:00~20:00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112 (남양동 개나리 4차 아파트 앞 상가)
전화 : 055)266-7010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포함 일정
429만 원(2018. 3. 26. 출발, 인솔자 동행)
가톨릭 트래블 www.catravel.co.kr
안지원 스테파노 070-4086-0207

SM 수맥흙(돌)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문 의 ☎ 1588-5335

위대한 탄생 101분
본사수입 성당상영 가톨릭 우리말 더빙
12월 14일 전국 개봉!
12월 1일부터 성당 방문 상영!
영상, 음향, 대형스크린 본사장비 사용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상영 문의: 가나미디어 영화사
010-3661-9923

치드키야

치드키야 왕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치드키야Zedekiah는 유다 마지막 왕이다. 이집트 속국이었던 유다를 바빌론 속국으로 바꾸면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임명했다. 요시야 셋째 아들로 원래 이름은 마탄야Mattaniah였는데 바빌론 측에서 바꾸게 했다(2열왕 24,17). 친 바빌로니아 세력으로 살라는 암시였다. 당시 21살 청년이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임금으로 앉히면서 엄청난 조공과 세금을 부과했다. 경제적 부담을 안긴 것이다. 당연히 제관들과 유지들은 곱게 넘어가지 않았다. 서서히 젊은 치드키야를 압박하며 항전 쪽으로 이끌었다. 이집트 및 인근 국가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바빌론에 대한 반란을 현실화시켜 나갔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반대했다. 바빌론 항전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말렸다. 예루살렘을 위해선 조공을 바치며 기다려야 한다고 외쳤다. 예언자는 옥에 갇힌다. 마침내 치드키야 통치 9년(BC 589년 겨울) 바빌로니아와 전쟁을 시작했다. 이집트와 주변국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지원은 차단되었다. 바빌론 군대는 토성을 쌓으며 쉬엄쉬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났다. 성안엔 기근이 들고 양식은 바닥났다(2열왕 25,3). 기원전 586년 여름, 마침내 성의 한쪽 벽이 뚫리자 바빌론 군대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치드키야와 측근들은 밤을 틈타 요르단 강변 아라바 쪽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예리코 벌판에서 잡힌다(예레 39,5).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치드키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였다. 왕손王孫을 끊은 것이다. 치드키야는 외쳤다. 차라리 내 눈을 뽑아다오. 그러자 그의 두 눈을 뽑고 사슬에 묶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2열왕 25,7). 이렇게 해서 유다 왕조는 끝났고 바빌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다.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타버렸다. 치드키야는 눈에 붕대를 감고 사슬에 묶인 채 옥에 갇혔다. 33살 한창나이였다. 유다의 젊은이들은 노예로 팔려갔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사판의 손자 그달야Gedaliah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다(2열왕 25,22). 사판은 요시야 때 율법학자(서기관)였다(2열왕 22,3). 제관 계급에게 예루살렘 뒷수습을 맡긴 것이다. 그달야는 안정을 위해 애썼지만 저항세력에 암살당한다(예레 41,2). BC 597년 여호야킨이 폐위되면서 1차 바빌론 포로가 생겼다. BC 586년 성전 함락으로 2차 바빌론 포로가 있었다. BC 582년 그달야 총독 암살로 3차 바빌론 포로가 등장한다. 해방은 BC 538년이다. 597년 추방에서 538년까지는 59년이 된다. 학자들은 586년 예루살렘 파괴 이후를 실질적 추방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바빌론 포로 기간은 48년이다.

가톨릭마산

교구보 2018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 기관지인 가톨릭마산에
2018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 문 의 : 미디어국 055)249-7074, 7072
팩스 055)249-7117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한국 틴스타 지도자과정 워크숍

대중문화의 혼란과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신체적인 면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이성적·영적인 면에서 통체적으로 성을 이해하고 성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도움을 주는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Sexuality Teaching in the context of Adult Responsibility)입니다.

■ 일 시 : 2018. 1. 17.(수)~20.(토) 09:00~17:00
4일간, 하루 8시간 (총 28시간, 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교구청 4층 회의실

■ 인 원 : 선착순 30명
(기존 수강자는 재교육으로 참여, 3년마다 자격증 갱신 요함)

■ 참가비 : 15만 원(점심식대, 교재비 포함), 재교육생 5만 원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천주교회
※ 참가자 실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 신 청 : 2018. 1. 8.(월)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접수 또는
가정사목국 전화 신청

■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